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

¹세명대학교 한의과대 원전사학교실 교수 · ²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교수
김동율¹ · 정지훈^{2**}

A Study on Gyeok-ki(膈氣) Symptoms of King Jeongjo

- Focused o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

Kim Dong-Ryul¹ · Jung Ji-Hun^{2**}

¹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To examine the progression and presentation of King Jeongjo's Gyeok-ki(膈氣) symptoms during his reign.

Methods : Based on recordings in the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related to Gyeok-ki(膈氣), characteristics of King Jeongjo's case was analyzed, then compared and examined against the political situation he was in.

Results : During the 24 years of reign, King Jeongjo's Gyeok-ki(膈氣) developed in four stages: beginning stage with mild symptoms, intrinsic stage where it became the King's main disease, peak stage where symptoms intensified, and chronic stage where symptoms became rather manageable but the disease occurred regularly.

Conclusions : From the year of accession to the year of death, King Jeongjo consistently complained of Gyeok-ki(膈氣), which seems to be strongly related to his family history and political situation.

Key words : King Jeongjo, Gyeok-ki(膈氣), Hwabyeong, Korean Medical History, Korean Medicine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2학기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 Jung Ji-Hun.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Tel : 033-730-0671 E-mail : albino24@sangji.ac.kr

Received(July 24, 2019), Revised(August 6, 2019), Accepted(August 7,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조선의 22대왕 정조(1752-1800)는 흔히 영·정조 시대라 부르는 조선의 문화 중흥기를 대표하는 왕이자¹⁾ 역사적으로 聖人이라 평가받은 왕²⁾이다. 영조 때부터 내려온 탕평책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후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국가의 학문적·정치적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서얼출신 인재 등용, 수원화성 건축 등 정조가 조선후기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상당하다.

이처럼 조선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왕 정조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신양선은 정조의 성격, 기호 등을 연구하면서 그의 건강을 논하였고,³⁾ 김선형 등은 정조의 사인⁴⁾과 체질⁵⁾에 대해 논하였다. 서정미는 심리학적 연구를 하였는데, 영조, 사도세자, 정조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 양상을 분석하였다.⁶⁾ 이와 같이 정조의 건강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그간의 연구 중 왕실의 가장 방대한 정사기록물인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김선형의 사인 연구에서 『승정원일기』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사인 시점을 중심으로 약 보름간의 기사만을 주로 살펴보았으며⁷⁾ 다른 연구들 역시 『승정원일기』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홍제전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정조의 질병에 대해 논한 연구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정조의 ‘膈氣’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오늘날 膈氣는 위의

소화 기능 자체를 지칭하거나 七情에 의해 기가 가슴에 영기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⁸⁾ 조선시대에도 膈氣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였는데, 『鄕藥集成方』에서는 근심과 성냄, 寒과 熱로 인해서 인체의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胸膈 사이에 기가 멎는 것을 膈氣라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동반증상으로 소화장애를 언급하였다.⁹⁾ 이러한 개념 설명은 『聖濟總錄』에서 근심과 화 등의 원인으로 인체의 흉격부가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¹⁰⁾으로 본 것보다 유사하다. 『東醫寶鑑』에서 膈氣는 九氣 중 하나이며¹¹⁾ 反胃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¹²⁾이라는 설명과 함께, ‘膈部の 氣가 막힘’이라는 증상용어와¹³⁾ ‘膈部の 氣’ 자체를 지칭하는 비정상용어¹⁴⁾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膈氣는 七情 혹은 寒熱 등의 원인으로 흉격부에 기운이 막힌 증상을 뜻하며, 동시에 흉격부의 기운 그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에서 膈氣가 등장하는 기사는 약 520건이며,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230여건의 기사가 모두 정조년간에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이 230여건의 기사 중 정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 180여건을 중심으로 정조의 膈氣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膈氣의 여러 특징들을 기

1) 신양선. 조선 후기 정조 연구. 역사와실학. 1993. 4. p.90.
2) 『정조실록』 「부록: 정조대왕 묘지문」. ‘王, 聖人也. 發明斯道之體, 主張斯道之命.’
3) 신양선. 조선 후기 정조 연구. 역사와실학. 1993. 4. pp.89-136.
4)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pp.142-161.
5) 김달래, 김선형.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 21(1). pp.44-52.
6) 서정미.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16.
7)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p.143.

8)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膈氣. 한의학대사전 [cited on August 6, 2019];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28260&cid=58505&categoryId=58527>
9) 유효룡, 노종래, 박운덕. 五膈氣論. 향약집성방 [cited on August 6, 2019];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93/volume/26#content_228 ‘言憂患寒熱, 動氣傷神, 而氣之與神, 並爲陽也, 傷動陽氣, 致陰陽不和, 而府藏生病, 結於胸膈之間, 故稱爲膈氣.’ ‘憂膈之病胸…飲食不下…患膈之病, 心下苦實, 滿噎輒醋心, 食不消…’
1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1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0. p.243.
11) 허준. 『東醫寶鑑』 「內景篇·氣門」.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253. ‘又有九氣, 一曰膈氣, 二曰風氣.’
12) 허준. 『東醫寶鑑』 「雜病篇·嘔吐門」.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1288. ‘朝食暮吐, 暮食朝吐, 今世謂之膈氣反胃也.’
13) 허준. 『東醫寶鑑』 「內景篇·氣門」.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266. ‘主氣滯, 破積結及膈氣’
14) 허준. 『東醫寶鑑』 「雜病篇·嘔吐」.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1283. ‘師曰, 過發其汗, 令陽氣微膈氣虛’

준으로 정조가 膈氣를 앓았던 전체 기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¹⁵⁾ 각 시기별 기사들과 그 특징을 살펴본 이후 본고 고찰에서 연구자가 살펴본 정조 膈氣의 특징적인 점을 『조선왕조실록』 및 『일성록』 등 왕실 정사기록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II. 본론

1. 발단기(정조 즉위년~정조 7년)

정조 재위기간 중 정조의 膈氣가 최초로 기록된 시기는 정조 즉위년(1776) 6월이다. 즉위한지 3개월이 막 지난 25살의 왕 정조는 이무렵 寒熱이 왕래하며 흉격 부위가 답답한 증상을 겪는다. 정조는 자신의 증상이 暑氣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며 의관들에게 진료를 청하였는데, 의관들 역시 이 병의 원인을 暑氣로 인해 痰이 結滯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의관들은 淸暑六和湯 加減方을 처방하였으며,¹⁶⁾ 다음날 정조의 건강을 살펴러 온 의관 오도형이 정조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때 “膈氣”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다.¹⁷⁾ 상황상 오도형이 설명한 膈氣는 전날 이야기한 흉격 부위가 답답한 증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조는 약 10일만에 걸쳐 淸暑六和湯 加減方을 복용하고¹⁸⁾ 치료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정조의 첫 번째 膈氣 기록이 끝난 후 膈氣에 대한 언급은 한동안 왕대비전이었던 정순왕후와 정조의 친어머니인 혜경궁의 증상으로 등장한다. 정순왕후는 정조1년(1777) 10월¹⁹⁾과 2년(1778) 6

월²⁰⁾에, 혜경궁은 즉위년 9월²¹⁾과 2년(1778) 7월²²⁾에 각각 膈氣에 시달렸다. 특히 2년에 있었던 정순왕후와 혜경궁의 膈氣는 즉위년 6월에 정조가 겪었던 膈氣와 마찬가지로 暑氣가 원인이었으며 처방 역시 淸暑六和湯 계열을 복용한다.²³⁾²⁴⁾

정조의 膈氣는 정조 3년(1779) 7월에 다시 보인다. 당시 정조는 咯血 때문에 강론을 지속하기 어려웠는데, 이에 좌승지가 咯血이 膈氣가 아직 내려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²⁵⁾ 정조 4년(1780) 8월에는 정조가 膈部의 痞滯, 즉 흉격 부위가 그득하고 울체된 듯 답답한 증상을 호소한다. 처음에는 몸이 좀 불편한 느낌 정도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²⁶⁾ 3일 뒤 증상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를 못할 수준에 도달한다. 진료를 맡은 의관들은 그 원인이 膈部의 滯氣, 특히 痰滯가 있다고 판단하여 行氣之劑인 香橘茶 加減方을 처방하였다.²⁷⁾ 다음날 정조는 膈部의 痞滯증이 약을 먹고 확 뚫려서 잠을 잘 잤다고 하였다. 그 외에 새벽에 흉격부에 무언가가 매달린 듯한 불편감,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의관들은 痰의 證候로 판단하여 전날과 동일하게 香橘茶 加減方을 처방하였다.²⁸⁾

15) 시기 구분의 기준은 ‘변화의 특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정조 7년에는 膈氣와 관련된 기사가 없고 정조 8년에는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변화의 시작인 정조 8년을 새로운 시기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16)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2일」 ‘上曰, 膈間常癡滯, 有乍寒乍熱之症. 此是暑氣乎?…似是痰滯之候矣…似是暑氣…淸暑六和湯本方中, 人蔘代入沙蔘一錢, 限五貼煎入. 出榻教’

17)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3일」 ‘國榮曰, 昨夕所進湯劑, 更爲進御, 似好矣. 上曰, 醫官所見, 何如? 道炯曰, 膈氣猶未快解, 今日又爲進御, 穩當矣.’

18)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7일」 ‘道炯曰, 暑氣方盛, 淸暑六和湯加進五貼, 好矣. 上曰, 進御淸暑六和湯, 限五貼自今日煎入.’

19) 『승정원일기』 「정조 1년 10월 22일」 ‘膈氣之壅滯, 痰候之升降, 卽王大妃殿患候本症, 而近日則日氣稍寒’

20) 『승정원일기』 「정조 2년 6월 5일」 ‘王大妃殿患候…上曰, 入夏以後, 本症候膈氣頻發, 水刺不善進御, 故氣候長時不平矣’

21)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9월 13일」 ‘惠慶宮症候, 若何?…似是膈氣癡滯之症也’

22) 『승정원일기』 「정조 2년 7월 8일」 ‘上曰, 惠慶宮氣候, 以暑症靡寧, 膈氣上升之候, 方苦, 煩熱之症兼發’

23) 『승정원일기』 「정조 2년 6월 5일」 ‘則此是暑候, 數三日連用六和湯, 姑觀症候之加減, 更進他湯劑爲好云’

24) 『승정원일기』 「정조 2년 7월 8일」 ‘道炯對曰, 此是暑氣壅滯之候, 淸暑六和湯, 加羌活·川芎進御, 則爲穩當矣.’

25) 『승정원일기』 「정조 3년 7월 10일」 ‘上曰, 俄者召對時, 咯血之症苦劇, 不得久爲講論矣. 民始曰, 膈氣未下而然矣.’

26)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19일」 ‘藥房口傳啓曰, 卽伏聞入侍醫官所傳, 則夜間聖候, 有感患之症云’

27)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22일」 ‘上曰, 大體有勝, 而寢睡以膈間痞鬱, 不能入睡, 似是終不得通利之致矣. 上謂道炯曰, 口味不變, 雖有思食之念, 而當飯則不能進, 寢睡則昨夜至五更後, 始入睡矣. 道炯對曰, 似是膈滯未通之候, 當用行氣之劑, 今日則香橘茶, 入人蔘五分進御, 誠得當矣…似是痰滯而氣不能順斡之祟矣’

그러나 3일 뒤 정조는 膈部의 滯氣가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기 증세도 완쾌되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의관들은 처방을 加味養胃湯으로 변경하였다.²⁹⁾ 결국 加味養胃湯을 복용하고 3일이 지나고서야 정조의 증세는 많이 호전되었다.³⁰⁾

정조 6년(1782) 6월 정조는 膈部의 滯氣로 상당히 괴로워하였으며, 땀도 많이 나서 의관에게 진료를 받는다. 정조는 스스로 자신의 증상의 원인이 痰이 滯했거나 氣가 滯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의관들은 이를 痰이 滯한 증후라 여겨 清理시키는 處方을 추천한다. 이에 정조는 通聖散을 언급하는데, 의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름철 暑濕이므로 淸暑六和湯이 좋겠다고 말한다.³¹⁾ 이후 기록을 보면 정조는 당시 膈部의 滯氣 외에도 눈의 증상³²⁾, 입맛이 없고 미롱골 부위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의 증상³³⁾도 겸하여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발단기 정조의 膈氣를 살펴보았다. 발단기에는 관련 기록이 총 4차례 존재하는데, 즉위년과 6년에 膈氣는 暑氣를 원인으로 한 여러 증상 중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3년에는 咯血을 이끈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4년에는 膈部의 痞滯 증으로서 膈氣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발단기 膈氣는 ‘정조의 증상’으로서 존재감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다른 시기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이시기 膈氣의 원인은 暑邪나 痰으로 귀결되며, 시기적으로도 주로 음력 6~8월에 등장하는데 이 역시 발단기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후 모든 시기에 걸쳐 더운 날씨가 격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종종 언급이 되나,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은 점차 변해간다.

2. 내재기(정조 8년~정조 12년)

정조 8년(1784)의 膈氣 기록은 4월, 7월, 8월 3차례로 나뉘어 있다. 4월에 정조는 痰이 滯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 무렵 外邪에 感하기도 하였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아 木米茶를 처방받고 싶다고 말한다. 신하들의 진찰 요청에도 木米茶면 된다고 말한 정조는,³⁴⁾ 결국 그날 밤부터 膈部가 답답한 불편감을 느껴 다음날 의관들의 진찰을 허락한다. 정조를 진료한 의관은 맥이 전체적으로 화평한 상태이므로 膈氣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茶 처방이 좋겠다고 하며 三子茶 加減方을 추천한다.³⁵⁾ 그리고 수일 뒤 정조가 별다른 증상 없이 膈部가 딱 찬 것 같아 잠을 잘 때도 숨이 고르지 못하다고 말하자 의관이 이 증상을 지칭해 膈氣라고 표현하였다. 치료 처방으로는 六君子湯이 추천되었는데 이는 종래에 왕에게 있던 虛症을 치료하고자 함이었으며, 그 외에도 蔘橘茶 加減方, 養胃湯 등이 언급되었으나 결국 順氣散을 복용하는 것으로 결정된다.³⁶⁾ 이후 膈氣가 며칠 더

28)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23일」 ‘昨日以前, 甚覺痞滯矣, 湯劑進御後, 膈氣頓開, 寢睡亦穩矣. 但曉睡初覺, 則膈中如錘懸空, 如此之時, 亦覺眩暈, 又有邊頭痛之意, 未知此何症也. 道炯奏曰, 此乃痰候也.’

29)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26일」 ‘弘淳曰, 夜間聖候, 若何? 上曰, 膈滯尚未快愈, 感氣亦隨以終不快解矣, 可悶. 弘淳請診候. 上曰, 置之. 上曰, 禁衛大將, 今當隨駕, 故卿則復除樂院之任矣. 弘淳曰, 大將隨駕, 誠幸矣. 命書榻教曰, 進御加味養胃湯一貼, 煎入. 命退, 諸臣以次出’

30) 『승정원일기』 「정조 4년 8월 29일」 ‘尙喆曰, 夜間聖體, 若何? 上曰, 有勝後一樣矣. 服藥後頗有顯效矣’

31)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7일」 ‘上曰, 近來膈滯之症, 挾感苦極, 而失汗之症尤甚, 是痰滯耶, 氣滯耶? 道炯等曰, 此是痰滯症候, 淸理之劑, 進御伏望矣. 上曰, 失汗, 極爲可悶. 非但用淸理膈氣之劑, 通聖散, 似爲無妨矣. 道炯等曰, 暑令汗氣, 是爲退暑濕之道, 以淸暑六和湯, 依本方進御, 伏望矣.’

3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10일」 ‘命善曰, 膈滯之症, 眼部之候, 更若何? 上曰, 劇歇無常矣.’

33)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13일」 ‘上曰, 近有厭食之症, 紅暈之漸, 上曰, 眉稜紅暈, 一樣無減, 眼部刺痛, 近有添劇’

34)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12일」 ‘上曰, 痰滯之証, 近因外氣, 越添頗苦, 小便亦不長利, 故俄試木米茶矣. 命善曰, 醫官等, 使之入診, 以爲議進湯劑之地, 好矣. 上曰, 不必用藥矣’

35)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13일」 ‘命善曰, 夜間聖體調攝, 若何? 茶飲亦奏顯效乎? 上曰, 一樣可悶. 茶飲雖似有效, 亦不顯然矣. 道炯曰, 脈候則一樣平和, 不必進湯劑, 只以三子茶疏膈氣, 而入生薑·木瓜各少許, 則似奏顯效矣. 命吉曰, 臣意則加入杏仁·吉更以導痰, 好矣, 文壽曰, 臣意則今日不必進湯劑茶飲, 以俟天和之不日還復矣. 上曰, 然則三子飲更爲煎入, 湯劑則不必議進矣.’

36)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19일」 ‘上曰, 與昨一樣, 而日漸向熱, 鬱甚梳洗矣. 道炯曰, 調則益勝, 而體弱矣. 上曰, 懃意少減, 飲食如常, 而膈間如滿, 寢時氣息不順, 是

진행되었으며 치료에는 順氣散과 養胃湯 加減方이 활용되었다.³⁷⁾³⁸⁾

같은 해 7월에 정조는 문효세자 세자책봉(冊禮) 날짜를 정하였다. 冊禮 날짜를 정하면서 정조는 근래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세자의 책례가 큰 기쁨을 준다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근래에 자신을 힘들게 한 일 중 하나로 膈氣를 언급한다.³⁹⁾ 8월에는 정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膈氣증세와 咳嗽을 호소하며 芎芷香蘇散과 橘薑茶를 처방받는데, 이때 膈痰을 설명하는 용어로 膈氣가 사용되었다.⁴⁰⁾⁴¹⁾

정조 9년(1785)에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에 걸쳐 오랫동안 膈氣를 치료한 기록이 남아있다. 정조는 5월 13일 膈氣 및 학질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正氣散을 처방받는다.⁴²⁾ 이후 六和湯 加減方, 養胃湯 加減方 등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⁴³⁾

10여일이 지난 5월 22일까지 人蔘之劑를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증세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⁴⁴⁾ 이에 藥房에서는 그동안 처방한 香砂養胃湯을 정지하고,⁴⁵⁾ 6월 초부터 淸暑六和湯 加減方을 처방한다.⁴⁶⁾ 며칠 뒤 정조는 膈氣에 그나마 養胃湯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였으나,⁴⁷⁾ 藥房에서는 淸暑六和湯 加減方으로 수일간 더 치료를 이어갔다.⁴⁸⁾ 결국 淸暑六和湯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정조는 膈氣가 자신의 本症이라 말하기에 이르며,⁴⁹⁾ 처방을 다시 香薷養胃湯으로 바꾸어 3일정도 더 치료한 뒤 치료를 마무리한다.⁵⁰⁾

정조 10년(1786)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비교적 넓은 시기에 걸쳐 膈氣가 언급된다. 3월에 정조는 膈氣를 호소하여 養胃湯을 추천받는데, 전날 복용한 正氣散 加減方과 香薷茶⁵¹⁾도 함께 요청한다.⁵²⁾ 다음날 정조는 어제 마음이 불편해서 膈氣가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말하며, 養胃湯을 좀 더 복용하겠다고 말한다.⁵³⁾ 6월 초에는 영의정 정존겸이 정

可悶也。道炯曰，此乃膈氣也。文壽曰，此痰候也。…上曰，向來則純虛，故六君子湯，有益無害矣。近來則少有熱意，不可純補，若用導滯行鬱之劑，則似好矣。道炯曰，純補之劑，雖不可進用，而參橘茶則入吉更·杏仁，可以進御矣。上曰，參橘太燥，吉·杏仁微矣。命善曰，不必急補，而疏滯亦不可連進矣。文壽曰，導滯行鬱則好矣。上曰，數日斡旋後，用養胃湯，似好矣。道炯等曰，聖教至當矣。…上曰，此藥似有效矣。命書榻教曰，進御順氣散一貼煎入。命善曰，諸大臣不勝憂悶，再明問欲入來求對矣。上曰，明日入來，好矣。

- 37)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20일」 ‘上曰，膈滯頓勝矣…上曰，今日則養胃湯不可服矣。面部有浮熱，似是感熱未盡退矣。…又命書榻教曰，進御順氣散一貼煎入。命退，諸臣以次退出’
- 38)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21일」 ‘上曰，大體無加，而膈氣有時往來，可悶。…命善曰，養胃湯，加入吉更一錢·縮砂五分，減蒼朮五分，好矣。上命書榻教曰，進御順氣散，停止。人蔘養胃湯本方中，減蒼朮五分，加吉更一錢·縮砂五分，自今日煎入’
- 39) 『승정원일기』 「정조 8년 7월 2일」 ‘命善曰，王世子冊禮，即舉國臣民顯企之事，…上曰，卿等庶諒予心，情私痛迫，遇喜益新，因此而又添膈氣，實難耐連長日矣’
- 40) 『승정원일기』 「정조 8년 8월 4일」 ‘奏曰，以脈候觀之，膈痰未快解矣。上命書榻教曰，進御藿香正氣散停止，芎芷香蘇散一貼煎入。又命書榻教曰，進御橘薑茶一貼煎入’
- 41) 『승정원일기』 「정조 8년 8월 6일」 ‘命善曰，今日聖體諸節，若何？上曰，比昨益瘳矣。命善曰，膈氣，若何？上曰，痰滯一樣，咳嗽小愈矣。命書榻教曰，進御橘薑茶一貼，依前煎入’
- 42)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13일」 ‘上曰，膈氣尚未快解，午後則有似瘳之症，且當此月，尤難爲懷矣。…上曰，正氣散一貼煎入事，分付’

- 43)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14일」 ‘上曰，進御加味六和湯，自今日至十五日一貼煎入’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16일」 ‘上命書榻教曰，進御加味六和湯停止’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17일」 ‘命書榻教曰，進御加減養胃湯，自今日至二十日，一貼煎入’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21일」 ‘上曰，膈氣尚未快愈，又當今日，尤難爲懷矣…上曰，進御加減養胃湯停止，香砂養胃湯一貼煎入’
- 44)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22일」 ‘上曰，近甚不平，十餘日進服參劑，而別無顯效，膈痰尚未快解矣’
- 45) 『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24일」 ‘進御香砂養胃湯，自今日停止’
- 46)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3일」 ‘命書榻教曰，進御淸暑六和湯本方中，減黃連五分，一貼煎入’
- 47)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8일」 ‘上曰，膈氣未解，而養胃湯，頗有效故，連爲進服矣’
- 48)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19일」 ‘上命進御淸暑六和湯，自今日停止’
- 49)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20일」 ‘命善曰，膈氣加減，何如？上曰，此是予之本症矣’
- 50)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23일」 ‘上命進御香薷養胃湯，自今日停止’
- 51) 원문에는 香薷茶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임
- 52)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3월 5일」 ‘上曰，昨以膈氣不寧，進服湯劑後，今似少愈矣。…上曰，唯。命書榻教曰，進御養胃湯，依前方一貼煎入。又命書榻教曰，昨日進御正氣散本方中，加入人蔘五分，一貼煎入，香薷茶一貼煎入’
- 5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3월 6일」 ‘上曰，昨日心緒不平，故似有膈氣，今已快差矣。…又命書榻教曰，進御養胃湯一貼，

조의 膈氣 증세를 묻는데, 이에 대해 정조는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정존겸은 슬픔으로 인한 노동이 지나쳐서 증세에 호전이 없는 것이라 말하였는데⁵⁴,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문효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된다.⁵⁵

이후 윤7월에 정조는 신하들에게 膈部가 항상 잘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⁵⁶ 9월에는 판부사 서명선의 안부 인사에 때때로 膈氣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한다.⁵⁷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정조는 약 1달간에 걸쳐 膈氣 치료를 받는다. 11월 말 정조는 膈氣와 함께 外感으로 인한 寒熱往來 증상과 咳嗽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못하는 등 증세가 점점 복합적으로 변해간다.⁵⁸ 처음에는 薑茶와 같은 食治로 접근하였으나⁵⁹ 치료에 진전을 보기 힘들어 11월 29일 저녁무렵 加味正氣散을 한첩 복용하게 된다.⁶⁰ 그러나 12월 초 정조는 심신이 불편하고 어지러운 증세를 호소하면서도⁶¹ 약방의 입진을 거절하였으며,⁶² 처방도 7일이 돼서야 복용하는 등 진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⁶³ 12월 20일 무렵 膈氣의 증상이 나아졌다

고 말하였는데,⁶⁴ 이때까지 정조가 받았던 처방은 주로 蔘橘茶 계열의 食治方이었으며, 18일에 잠깐 加味消滯飲이 언급되었다.⁶⁵

정조 11년(1787)에는 3월에 膈氣 증상이 언급되는데, 膈氣로 그간 고통스러웠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하며 不換金正氣散 加減方을 처방받는다.⁶⁶ 정조 12년(1788)에는 혜경궁의 膈氣에 香橘茶를 처방한 기록이 남아있다.⁶⁷

이상 정조 膈氣의 내재기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膈氣가 발단기에 비해 ‘주목받는 증상’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조 8년 4월에 의관이 정조의 병증을 膈氣라고 명명한 이래로⁶⁸ 세자 책례가 있던 같은해 7월에는 정조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만든 증상으로 ‘膈氣’를 지칭하고 있다. 이후 정조 10년 9월 서명선의 안부 인사에도 정조는 자신이 때때로 膈氣를 겪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⁶⁹, 이러한 양상은 발단기 膈氣가 주로 여러 증상들 중 하나로 지칭되던 점과 대비된다.

두 번째로, 내재기에 처음으로 膈氣를 정조의 고질병으로 지칭하였다. 정조 9년에 정조는 膈氣가 자신의 本症이라 말하였으며,⁷⁰ 膈部가 항상 잘 통하

煎入’

54)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6월 3일」 ‘存謙曰, 膈氣痰候, 果已差復, 而寢睡·水刺等節, 亦如常度否? 上曰, 膈滯乍減, 而寒痰則終不快降耳. …存謙曰, 昨日又爲親臨臨加蔞云, 日日悲疚勞動, 其他傷懷之端, 觸處皆然, 不知之中, 受傷必多. 伏願節宣保衛, 上以慰殿宮之心, 下以副臣民之望焉.’

55) 『정조실록』 「10년 5월 11일」 ‘王世子薨’

56)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윤7월 5일」 ‘上曰, 雖不知食滯與氣滯, 而膈間常不通利, 似因暑氣所致, 而今則夫瘳矣.’

57)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9월 2일」 ‘命善曰, 臣逃違登對, 其間寢睡水刺之節, 若何? 上曰, 近以膈氣, 時時作若[苦]矣.’

58)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26일」 ‘上曰, 自午後忽挾外感, 寒熱時時往來, 膈氣又滯, 咳嗽亦甚, 終日委頓, 尙此氣鬱, 醞醉甚難矣.’

59)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27일」 ‘上曰, 薑茶間間進服, 而終不通利矣. 命退, 諸臣以次退出.’

60)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29일」 ‘上曰, 今日外氣稍有減意, 膈滯尙不通利矣. …仍命書榻教曰, 進御加味正氣散一貼煎入.’

61)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4일」 ‘上曰, 心神不寧, 眩氣時發.’

62)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4일」 ‘樂性曰, 令醫官入診, 何如? 上曰, 何必診脈, 以便予心焉? 命退.’

6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7일」 ‘上曰, 不必診脈, 退去議藥以入好矣. 命書榻教曰, 進御加減補心湯一貼煎入.’

64)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20일」 ‘樂性曰, 膈氣已臻快復否? 上曰, 自昨小愈矣.’

65)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18일」 ‘上曰, 膈滯之症似勝矣. …蔘橘茶中, 加吉更只角則, 似好矣. 上曰, 進御交感蔘橘茶停止, 加味消滯飲一貼煎入.’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2월 20일」 ‘命書榻教曰, 進御交感蔘橘茶, 一貼煎入.’

66)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3월 5일」 ‘上曰, 以膈氣辛苦, 今則少愈矣. …命書榻教曰, 進御不換金正氣散前方中減半夏, 一貼煎入.’

67)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6월 24일」 ‘午間惠慶宮問安諸節, 若何? …命緯曰, 湯劑當以膈氣之潤下爲主矣. …惠慶宮進服香橘茶, 一貼製入. 命退, 諸臣以次退出.’

68) 『승정원일기』 「정조 8년 4월 19일」 ‘上曰, 億意少減, 飲食如常, 而膈間如滿, 寢時氣息不順, 是可悶也. 道炯曰, 此乃膈氣也.’

69)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9월 2일」 ‘命善曰, 臣逃違登對, 其間寢睡水刺之節, 若何? 上曰, 近以膈氣, 時時作若[苦]矣.’

70)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20일」 ‘命善曰, 膈氣加減, 何如? 上曰, 此是予之本症矣.’

지 않는다고 말한다던지,⁷¹⁾ 안부인사에 膈氣를 지칭한다던지 하는 모습⁷²⁾들을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膈氣가 수일간 발생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조가 오랜 기간 경험할 정도로 내재된 증상임을 유추케 한다.

세 번째로, 내재기에는 감정과 관련된 문제가 膈氣를 일으킨 원인으로 떠오른다. 정조 10년에 정조는 마음이 불편해서 膈氣가 있었다고 표현하였으며,⁷³⁾ 그 외에도 문효세자의 죽음이나 정순왕후와의 한 달여간의 의견충돌⁷⁴⁾ 등과 맞물려 정조의 膈氣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발단기에 膈氣는 주로 음력 6~8월에 몰려 있으며, 병의 원인으로 서사가 주로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내재기에는 점차 기후적 요인과 별도로 膈氣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3. 膈氣 절정기(정조13년~정조18년)

절정기는 모든 해에 膈氣가 언급되나 특히 세 해에 걸쳐 膈氣가 크게 언급된다. 그 첫 번째 시기는 정조 13년(1789)이다. 기사에 표현에만 의존해 볼 때 정조 13년 정조의 膈氣는 7월부터 10월까지 비교적 심각한 상태가 지속된다. 7월에는 膈氣로 인해 신하들과의 대화가 중단되는데, 이때 정조는 신하들의 대화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膈氣가 갑자기 심해져 가슴이 막히고 숨이 짧아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⁷⁵⁾

8월에는 膈氣와 관련된 기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정조는 膈氣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⁷⁶⁾ 膈

氣가 심해져 출발할 수가 없다,⁷⁷⁾ 일시적으로 나타난 膈氣이다,⁷⁸⁾ 경들과 이야기하다보니 膈氣가 다시 오른다,⁷⁹⁾ 膈氣가 이미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계획을 바꿔야 하겠다,⁸⁰⁾ 어젯밤 膈氣가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⁸¹⁾ 등 중순부터 하순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하들과 대화를 하기에도 상당히 방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膈氣를 앓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도 계속해서 膈氣가 언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展拜⁸²⁾를 다녀오면 膈氣가 나아질 것이다,⁸³⁾ 膈氣로 인한 손상이 심해진 것 같으니 약방의 진찰을 허락해 달라,⁸⁴⁾ 膈氣가 치솟는 증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⁸⁵⁾ 膈氣가 점차 치밀어 올라왔다,⁸⁶⁾ 왕이 곡을 그치지 않자 膈氣가 심해졌다,⁸⁷⁾ 氣道가 갑자기 막혀 蘇合元 등을 받았으나 몇 차례 마시지 못하고 바로 토하였다.⁸⁸⁾ 膈氣가 아무 때나 심해졌

71)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윤7월 5일」 ‘上曰, 雖不知食滯與氣帶, 而膈間常不通利’

72)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9월 2일」 ‘命善曰, 臣逃違登對, 其間寢睡水刺之節, 若何? 上曰, 近以膈氣, 時時作若[苦]矣.’

7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3월 6일」 ‘上曰, 昨日心緒不平, 故似有膈氣, 今已快差矣.’

74) 정조 10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은언군 처벌에 대한 정조와 정순왕후간의 政爭을 지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고찰에 서술하였다.

75)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上曰, 予之素有膈間衝上之氣, 卿等亦必知之, 在平時雖十分理遣, 少爾則每如此, 今見都尉之疏, 又聞卿等之奏, 語到本園, 自不禁臆塞氣短, 猝難發言矣.’

76)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11일」 ‘上曰, 外氣今幾復常, 至於膈氣, 往來無時’

77)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12일」 ‘上曰, 今予膈氣復劇, 無以進發, 提調使之入來’

78)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14일」 ‘傳曰, 一時膈氣, 既非避風怕寒之症.’

79)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20일」 ‘上曰, 爲卿等所困, 膈氣復欲亘上, 須退立也.’

8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21일」 ‘膈氣既如此, 卿等之陳請又如此, 五日之計, 拖至十日, 予懷耿耿, 何可勝言?’

81)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24일」 ‘上曰, 昨日夜深後, 膈氣忽然衝亘’

82) 종묘나 왕릉 등에 참배함

83)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9월 21일」 ‘近日以來, 予心若喪之初, 尤難堪忍, 而至於明日, 異於他日, 若暫時展省, 則予之膈氣, 似可少勝矣’

84)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9월 24일」 ‘藥房口傳啓曰, 卽者正氣散煎入之命, 仰認膈氣之添損矣. 承候是急, 相率來侍, 雖伏承比午間少勝之教, 而此時診察, 不容少緩, 故敢率諸御醫求對’

85)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9월 29일」 ‘萬有一膈間往來之候, 或發於蜃衛在前, 鑿鑿隨後之時, 則攀縋之臣, 皆將憂違奔走, 不能自效於終事之地’

86)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1일」 ‘上候膈氣有加, 仍以篤驕入齋殿, 隨駕諸臣, 未及問安…膈氣漸至衝亘, 哭不能成聲, 承史·閣臣侍左右者, 無不掩泣焦慮, 罔知收措…上不能垂聽, 無所下答.’

87)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2일」 ‘上號哭之聲不撤, 膈氣衝亘之候, 漸漸添劇’

다 덜해졌다 한다.⁸⁹⁾ 膈氣가 올라 정신이 멍해졌으며 숨이 가쁘다⁹⁰⁾ 등이 등장한다. 8월에 膈氣가 심해졌을 때보다 증상의 발현 양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약을 복용할 수 없을 정도로 膈部의 기운이 치솟아 올랐으며, 정신이 멍해지는 증상도 발생한다. 특히 9월 말 기사를 보면 8월 이후로 증상이 편찮으신 일이 많았다⁹¹⁾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의 膈氣가 지난 8월부터 상당히 격해져서 10월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조 14년(1790)과 15년(1791)에는 膈氣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14년 1월에 膈間의 불편함이 있어 養胃湯 등을 처방한 기사가 나오며,⁹²⁾ 15년에는 사도세자⁹³⁾의 사당인 경모궁에 전배를 다녀오면서 자신의 고질병인 膈氣가 이런 행사를 치를 때 한 번씩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한다.⁹⁴⁾ 그 외에도 15년 6월에 膈氣 증상이 잠시 언급되는데, 여기서 정조는 자신의 고질병인 膈氣가 더운 시기에 더욱 괴롭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며,⁹⁵⁾ 6월 29일에는 홍락성이 정조의 膈氣 증세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달라 하니 마음 쓰는 일이 있으면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데, 특히 중묘에 다녀오면 힘든 때가 생긴다고 하였다.⁹⁶⁾

膈氣가 비중있게 등장한 두 번째 시기는 정조 16년(1792)이다. 16년에는 거의 모든 달에 두루 膈氣가 언급된다. 1월 말 정조는 출궁하던 중 膈部가 滯한 증상이 있었으며,⁹⁷⁾ 2월에는 膈氣가 자신의 본 증상인데 이것이 몸을 쓰는 일(行役)을 하면 좀 사라지고 마음 쓰는 일(勞心)을 하면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⁹⁸⁾ 특히 속종의 膈火 증상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膈部의 증상을 ‘왕가의 증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⁹⁹⁾ 실제로 勞心과 관련되어 膈氣가 나타난다는 언급은 이후에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월 13일 정조는 신하들의 요구(酬應)가 적으면 증상이 줄어들고 요구가 번잡해지면 증상이 다시 생긴다고 하였는데¹⁰⁰⁾, 14일에는 본인이 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신하들이 전날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하였다며 신하들을 꾸짖는다.¹⁰¹⁾ 17일에는 정조가 자신의 양부인 효장세자의 능에 다녀오겠다고 명하는데, 이에 건강을 더 회복한 뒤에 가자고 설득하는 신하들에게 정조는 이 일이 마음 쓰는 일이 아닌 몸을 쓰는 일이므로 膈氣에는 더욱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녀오겠다고 말한다.¹⁰²⁾ 결국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효장세자의 능에 다녀오는데, 실제로 27일에 정조는 자신의 膈氣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¹⁰³⁾

88)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4일」 ‘聖候必是暈塞而然，即當進御蘇合丸矣。仍即退出，以陳皮使香附縮砂等分煎，水和蘇合元五丸入來奉進。上啜飲未及數次，旋即吐出，’

89)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6일」 ‘予之膈氣，苦歌無常，何暇言乎?’

9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7일」 ‘上叩擗逾節，膈氣衝巨。時原任大臣，驚遠進前，諸閣臣左右環侍，力請止哭，而上一不下答，愈益號哭’

91)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9월 29일」 ‘而竊伏念八月以後，聖候之不寧，凡幾遭矣.’

92)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월 17일」 ‘上曰，膈氣擬似感熱所結，故以臆見，服忍冬…上曰，不必連服雜藥，姑俟加勝，養胃湯入人蔘進服，則元氣豈不即復乎’

93) 정조의 아버지로 정조 즉위 이후 장헌세자로 개칭되었다.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도세자를 대표명칭으로 사용하였다.

94)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21일」 ‘上詣景慕宮，展拜入侍時…上曰，予有真疾，若值如今日之時，膈氣亘上，誠爲可悶，曉又復發，爲俟少間，故今此行禮，以至稍晚矣’

95)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6월 26일」 ‘上曰，素以膈氣，不耐盛暑，近因炎熱，尤爲難堪矣.’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6월 29일」 ‘上曰，大體一樣，而本有膈氣，當暑尤苦’

96)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6월 29일」 ‘樂性曰，伏承有膈候之教，實不勝憂慮之至，有膈候時，則症勢諸節，果何如?’

上曰，勞心則每患越添，至於宗廟大祭，一經親行後，則或有難耐之時，省謁之禮典，莫重莫大，肅齋齋沐之際，安得無勞心之端乎?’

9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월 26일」 ‘上曰，再昨出宮時，微有膈滯矣。奉審園所，追慕少伸，故膈氣快降，而今方回鑾，有遲遲吾行之意，心懷難以形言矣.’

9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0일」 ‘膈氣即予本症，而今則年年如期而發…上曰，膈氣自前有之，而大體行役則少勝，勞心則添加矣’

99)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0일」 ‘上肅廟朝睿姿卓越，而以膈火眼視早昏，至有概示於絲綸之間，以予所經歷，安得無膈火乎?’

100)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3일」 ‘垺曰，膈候升降，何如? 上曰，酬應小則差勝，酬應頌則復發矣.’

101)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4일」 ‘忽於今朝，左相又尋單，敦諭也，偕來也，許多酬應，十倍於昨日，方升之氣，烈於焰火’

10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7일」 ‘膈氣之於勞力，爲益不少，卿等勿以爲慮，別無議藥之症，更待後日次入侍宜矣，’ ‘日昨登筵，聖教丁寧，諭以膈氣升降，有動作則反有益焉.’

103)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27일」 ‘回駕之後，膈氣比日前快減，卿等不必入侍矣’

3월 말에도 정조의 膈氣가 언급되는데, 도당록¹⁰⁴⁾ 작성에 대한 좌의정 채재공과 우의정 박종악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조가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빠른 의견 조율을 요구한다.¹⁰⁵⁾ 결국 정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만에 도당록이 작성된다.¹⁰⁶⁾

정조 16년 윤4월에서 5월까지도 정조의 膈氣가 두드러진다. 윤4월 하순 무렵 정조는 신하들에게 마음이 답답하고 膈氣가 나타나 말하기가 어려우니 요청할 것이 있다면 때를 기다려 요청하라고 말한다.¹⁰⁷⁾ 다음날 정조는 최근에 듣기도 보기도 힘든 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膈氣가 往來하여 신하들의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한다.¹⁰⁸⁾ 이후 膈氣에 대한 기사는 5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신하들에게 膈氣가 올라와 지금 신하들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膈氣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할 일들로 인해 발생한다든가,¹⁰⁹⁾ 사려가 많아서 膈氣가 鬱結되었다던가¹¹⁰⁾ 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5월 중순에는 의관들이 입진하여 順氣之劑인 加味香橘茶를 처방하기도 하는데¹¹¹⁾ 하순 무렵 정조는 의관들로 입진케 하라는 신하들의 말에 신하들과의 논쟁 자체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 하며 그들의 요청을 강하게 물리친다.¹¹²⁾

이후 8월에는 근래에 膈氣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¹¹³⁾ 9월에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 참배를 다녀온 정조에게 膈氣가 어땠는지 묻는 신하들의 질문에 능행보다는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과정이 자신의 膈氣를 심화시킨다고 대답한다.¹¹⁴⁾ 10월에도 정조의 膈氣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좌의정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조는 이일로 자신의 膈氣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말한다.¹¹⁵⁾ 12월에도 정조의 膈氣가 언급되는데 이 역시 膈氣로 힘든 자신을 더 이상 번민케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다.¹¹⁶⁾

정조 17년(1793)에도 몇 차례 膈氣가 언급되는데 주로 膈氣가 올라왔으나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거나,¹¹⁷⁾ 六和湯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기록이다.¹¹⁸⁾ 17년 11월에는 정조가 신하들과 慈殿 및 慈宮의 존호를 올리는 일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신하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자 자기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가 하면서 膈氣가 오른다고 말한다.¹¹⁹⁾

上曰, 往來之氣, 故升降不知一日幾次矣? 昌順曰, 醫官方待命, 茶飲之屬, 先爲議定, 千萬伏望. 上曰, 置之. 又教曰, 今予之神氣, 實難酬接

104) 홍문관 교리 등을 임명하기 위한 선거 기록
105)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3월 27일」 ‘左相書啓之批, 悉之…沈卿在保護重任, 熟知其酬應若煩, 膈氣如期, 而如是自劃, 不念貽惱者, 不可但以慨然言. 安心勿待命, 卽爲開坐, 一心對揚, 俾完圈事之意’
106) 『정조실록』 「16년 3월 28일」 ‘都堂錄 四點李義駿…’
10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윤 4월 22일」 ‘予心抑塞, 膈氣往來, 語音難成, 無以詳盡, 姑待後日入侍, 更當問之’
10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윤 4월 23일」 ‘上曰, 近以不忍聞不忍見之章奏, 鑢日入徹, 予之心思, 無以底定矣…上曰, 公事不可遲留, 雖臨殿而膈氣來往, 酬應甚難矣.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109)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9일」 ‘上曰, 此月又當, 齋日不遠, 心思難定, 而近以不忍聞不忍見之章奏, 膈氣上升, 精神不能收拾矣’
110)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10일」 ‘上曰, 思慮多端, 膈氣鬱結, 以順氣之劑, 議定爲好’
111)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11일」 ‘而膈候尙未快復, 湯劑則限三貼連爲煎入, 何如?… 命書榻教曰, 進御加味香橘茶一貼煎入’
11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22일」 ‘膈候俄間, 何如?’

113)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8월 23일」 ‘上曰, 予亦以膈氣, 近頗爲難矣’
114)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9월 5일」 ‘上曰, 一樣矣. 膈氣時或升降, 蓋酬應頗多, 則有加矣. 濟恭曰, 膈候尙此欠和, 下情悶慮, 何可勝達?’,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9월 19일」 ‘上曰, 大體一樣, 而乘御駕備法服之時, 接群下應萬機之際, 膈氣每每如期而發, 不能鎮定, 是爲可悶矣.’
115)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0월 4일」 ‘大臣予之股肱也, 股肱而不協, 膈氣之不能調和, 勢固然矣, 予之一副苦心’
116)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12월 8일」 ‘昨日侵暮酬應, 今又膈氣甚不平, 難以酬接, 卽爲退出, 可也. 濟恭曰, 以氣候不平爲教, 臣當退出, 死於天墜矣’
117)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5월 22일」 ‘答曰, 氣升比昨少歇, 而癘毒益肆, 膈氣益甚, 雖非卿等入侍, 自多公事酬應添劇, 可悶, 卿等退去, 湯劑則不必登筵議定矣.’
118)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5월 23일」 ‘上曰, 予之膈氣, 每每如期而發, 誠爲悶然…又命書榻教曰, 進御六和湯本方中, 加陳皮一錢五分, 唐木香五分, 藿香縮砂各五分, 香薷厚朴減五分, 甘草減二分, 去人蔘, 一貼煎入’
119)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1월 20일」 ‘卿等若以予言, 猶以爲不然, 雖將此事, 仰徹殿宮, 殿宮之教, 亦必以卿等之言, 爲不可, 似此緣由, 非不欲詳及於批旨, 此非可以形容於文字之事也, 況今祝慶飾歡之時, 亦不欲提及而然也.’

膈氣가 비중 있게 등장한 세 번째 시기는 정조 18년(1794)이다. 18년에는 1월 1일부터 膈氣가 등장하는데,¹²⁰⁾ 치료에 대한 기록은 1월 중순 무렵이며 당시 童便과 蘇合元을 처방받는다.¹²¹⁾ 이후 降氣湯과 交感茶 등을 처방하였으나 膈氣는 계속되었다.¹²²⁾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신하들과의 대화에서 膈氣가 올라오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와중에 童便과 蘇合元, 加味正氣散, 交感降氣湯 등을 처방한다.¹²³⁾ 정조의 膈氣 기사는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의관들이 진료를 한 기록도 있으나 주로 신하들과의 대화 속에서 膈氣가 나를 힘들게 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¹²⁴⁾¹²⁵⁾ 이야기가 주가 된다. 이후 12월에 다시 膈氣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때도 역시 신하들과의 논쟁이 심해지자 膈氣가 올라온다고 말한다.¹²⁶⁾

절정기 정조의 膈氣는 앞의 두 시기와 달리 짧은 기간 내에 다량의 기사가 남아있다. 실제로 발단기에서는 여타 병중에 膈氣라는 증상이 곁들여졌고 내재기에서 膈氣가 정조에 고질병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면, 절정기에는 증상 발현이 절정을 이루면서 정조의 膈氣가 더욱 화두가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상당히 극렬해진다는 것이다. 증상들을 살펴보면 가슴이 막히고 숨이 짧아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¹²⁷⁾는 기록부터 膈氣가 이미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업무 계획을 바꾼다거나,¹²⁸⁾ 膈氣로 인해 氣道가 갑자기 막혀 蘇合元을 처방받으나 먹지 못하고 바로 토하고,¹²⁹⁾ 膈氣가 올라 정신이 멍해지며 숨이 가빠지기¹³⁰⁾도 하였다. 처방역시 蘇合元, 清心元과 같이 급중에 사용하는 처방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승정원일기』 정조년간 정조의 膈氣 기록이 총 182건인데 이중 약 65%에 해당하는 123건의 기사가 모두 이시기에 몰려있는 만큼 절정기는 膈氣가 상당히 화두가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膈氣가 신하들과의 논쟁이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한다. 정조 13년 7월 신하들의 대화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평소 겪던 膈氣가 갑자기 심해져 가슴이 막히고 숨이 짧아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 것¹³¹⁾을 시작으로, 13년 9월부터 10월에 있었던 膈氣 증상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膈氣가 심해진 상황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정조가 직접 신하들의 요구(酬應)가 번잡해지면 膈氣가 생긴다고 하기도 하였으며¹³²⁾, 대신들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빠른 의견 조율을 요구하기도 한다.¹³³⁾ 실제로

120)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1월 1일」 ‘上曰…膈氣復發，故至於望燠使之攝行矣…上曰，予豈不知無前之慶事，而自然心懷不能抑制耳。仍又掩泣，膈氣復升，樂性等罔知所措.’
 121)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1월 13일」 ‘命書榻教曰，進御交感茶，去人蔘，一貼煎入。有防出傳，奉交感茶以進，上進御而膈氣猶未通利，更進童便蘇合元.’
 122)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1월 20일」 ‘上又以司講口傳下教曰，少頃，降氣湯一貼，更爲煎入，1월 22일 命書榻教曰，進御降氣湯停止，交感茶三貼製入’
 123)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2월 5일」 ‘有膈氣有往無來之教，臣等誠不勝萬萬慶幸，而第多日靜攝之餘，有此應節，此時將攝，益加聖念，千萬顯祝之至’
 124)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7월 7일」 ‘上曰，昨日達宵失眠，膈氣往來，是爲悶然…上曰，猶以爲不足也。卿招致周命新，更議當進湯劑以入。上曰，旱氣似酷，民情以爲如何?’
 125)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8월 9일」 ‘上曰，先朝每於悶旱之餘，聖候欠和，而予則非但悶旱，膈氣往來故也…卿等之入來提說，無異於已稱賀，更勿出此言也.’
 126)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12월 6일」 ‘又下教曰，予方坐於寒殿，膈氣又將如期而發矣。大臣若能體國，豈如是強聒乎?’

127)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上曰，予之素有膈間衝上之氣，卿等亦必知之，在平時雖十分理違，少爾則每如此，今見都尉之疏，又聞卿等之奏，語到本園，自不禁臆塞氣短，猝難發言矣.’
 128)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21일」 ‘膈氣既如此，卿等之陳請又如此，五日之計，拖至十日，予懷耿耿，何可勝言?’
 129)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4일」 ‘聖候必是暈塞而然，即當進御蘇合丸矣。仍爾退出，以陳皮便香附縮砂等分煎水和蘇合元五丸入來奉進。上啜飲未及數次，旋即吐出.’
 13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7일」 ‘上叩聯逾節，膈氣衝巨。時原任大臣，驚遑進前，諸閣臣左右環侍，力請止哭，而上一下答，愈益號哭’
 131)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上曰，予之素有膈間衝上之氣，卿等亦必知之，在平時雖十分理違，少爾則每如此，今見都尉之疏，又聞卿等之奏，語到本園，自不禁臆塞氣短，猝難發言矣.’
 13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3일」 ‘上曰，酬應小則差勝，酬應煩則復發矣.’
 133)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3월 27일」 ‘左相書啓之批，悉

이 시기에 정조가 膈氣를 겪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도세자의 묘 이장문제, 수원 화성건축, 영남만인소 사건 등 정조 역사에서 꽤 큼직한 일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들은 시기적으로 정조가 膈氣를 호소한 시기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¹³⁴⁾

세 번째로 膈氣가 정조의 심리적 상태와 연관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시기 정조의 膈氣는 신하들과의 논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며, 정조 본인이 勞心으로 膈氣 증상이 더해진다고 말하거나¹³⁵⁾ 몸을 쓰는 일을 하고나서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¹³⁶⁾ 또한 膈氣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할 일들로 인해 발생한다든가,¹³⁷⁾ 사려가 많아서 膈氣가 올걸 되었다던가¹³⁸⁾ 하는 표현들은 심리적 상태와 膈氣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4. 膈氣 만성기(정조19년~정조24년)

정조 19년(1795) 7월 신하들은 정조에게 膈氣의 升降상태를 묻는데, 정조는 여름이 좀 지나니 나아졌다고 대답한다.¹³⁹⁾ 그리고 며칠 뒤 더위가 壅滯되어 膈氣가 있었으나 밤이 되니 내려갔다고 대답한다.¹⁴⁰⁾ 20년(1796)에는 膈氣가 비교적 극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5월의 경우 膈氣가 심해져서 경모

궁에 참배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¹⁴¹⁾ 이후 약방에서 膈氣의 증상이 심해지니 蘇合元을 복용하자고도 한다.¹⁴²⁾ 그러나 6월이 되면 작년 이맘때와 달리 올해는 膈氣가 없다¹⁴³⁾는 표현이 나오면서 膈氣의 정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년(1797) 1월 5일 정조는 최근 膈氣가 있다고 말하며,¹⁴⁴⁾ 9일에는 약방에 이제 膈氣가 줄었다고 이야기 한다.¹⁴⁵⁾ 13일에도 膈氣가 있다가 내려갔다고 말하는데,¹⁴⁶⁾ 17일에 당시 종3품 執義였던 이명연이 정조의 膈氣와 관련된 긴 상소문을 올린다. 내용인 즉, 膈氣가 있다면 이것은 신하들과 더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야 풀릴 것인데 왜 膈氣를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냐는 것이었다.¹⁴⁷⁾ 이상의 상소문은 곧 화두가 되어 많은 신하들이 이명연을 처벌하자고 요청하기에 이른다.¹⁴⁸⁾

22년(1798) 정조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수원에 거하는데, 그 첫날 추운 날씨와 수일 전부터 조금씩 발생했던 膈氣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기에 이른다.¹⁴⁹⁾ 이에 이튿날 桂苓飲을 처방하였으며¹⁵⁰⁾ 3일에 상태가 양호해지면서¹⁵¹⁾ 5일

之…況卿在保護重任，熟知其酬應若煩，膈氣如期，而如是自劃，不念貽惱者，不可但以慨然言。安心勿待命，卽爲開坐，一心對揚，傳完圈事之意.’

134) 상기한 역사적 사건의 시기와 膈氣가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논술하였다.

135)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0일」 ‘膈氣卽予本症，而今則年年如期而發…上曰，膈氣自前有之，而大體行役則少勝，勞心則添加矣’

136)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7일」 ‘膈氣之於勞力，爲益不少，卿等勿以爲慮，別無議藥之症，更待後日次入侍宜矣’，日昨登筵，聖教丁寧，諭以膈氣升降，有動作則反有益焉.’

13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9일」 ‘上曰，此月又當，齋日不遠，心思靡定，而近以不忍聞不忍見之章奏，膈氣上升，精神不能收拾矣’

13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10일」 ‘上曰，思慮多端，膈氣鬱結，以順氣之劑，議定爲好’

139)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7월 11일」 ‘頤之曰，晨夕之間，涼意乍生，膈氣升降之節，何如? 上曰，今年則大勝於前，今又處暑已過，自可差復矣.’

140)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7월 21일」 ‘上命書傳教曰，昨因膈氣，因暑壅滯，夜雖稍降，未能離次清齋之故’

141)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5월 5일」 ‘上教鍾顯曰，姑未受香乎? 今番夏享，膈氣甚苦，竟未展拜，卿須致誠，期於利成也.’

142)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5월 22일」 ‘藥房口傳啓曰，昨伏承膈氣頗苦之教，而繼而有童僕蘇合元再次調進之教，下情不勝萬萬焦迫之至，… 膈間亦頗通利，此症別無可以議藥者’

14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6일」 ‘頤之曰，昨年此時，聖候，以膈氣微有愆和之節矣。今年則諸節萬安…’

144)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1월 5일」 ‘上命書傳教曰，近有膈氣，今日差歇’

145)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1월 9일」 ‘上曰，日前有膈氣陸降矣’

146)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1월 13일」 ‘傳曰，膈氣雖降，今番所經，頗繁之致，姑不酬應’

147)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1월 17일」 ‘執義李明淵疏曰，伏以年光載新，邦福如天，殿宮賀添壽之慶，胄邱衍就傅之吉，正宜天心悅豫，玉體康泰，下洽含生，樂胥無疆，而適者聖候，以膈間潮氣，愆和有日，臣庶焦憂…’

148) 『정조실록』 「21년 1월 18일」 ‘承旨申獻朝上疏，請李明淵嚴賜處分’，副修撰朴載淳上疏，請李明淵設鞫得情’ 외

149)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2월 1일」 ‘上曰，膈痰凝結，又有寒氣往來，似店非店，誠爲可悶矣.’

150)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2월 2일」 ‘上曰，姑未夫愈，湯劑方欲一試矣。命書榻教曰，進御桂苓飲一貼煎入.’

151)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2월 3일」 ‘濟恭等曰，夜間調

에는 무사히 환궁하였다.¹⁵²⁾

23년(1799)에는 신하들과의 논쟁에서 膈氣가 언급되었다. 당시 정조는 신하들과 화완옹주의 처벌에 대해 의견이 갈렸는데, 신하들이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대궐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자 정조는 자신의 膈氣가 오르니 그만 물러가라고 말한다.¹⁵³⁾ 삼일 뒤 정조에게 外感 증세가 있다고 들은 신하들이 건강을 물으러 오자 정조는 외감보다 膈氣가 더 큰 문제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⁵⁴⁾ 같은 해 11월에는 삼정승의 체차, 즉 면직 요구가 있었다. 11월 2일 영의정이 면직을 요청한 데 이어¹⁵⁵⁾ 11월 6일에 좌의정 심환지와 우의정 이시수가 면직을 요구하였다.¹⁵⁶⁾ 이 과정에서 정조는 좌의정 심환지에게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들며 더는 이런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¹⁵⁷⁾

정조의 膈氣 마지막 기사는 정조 24년(1800), 즉 정조의 즉위 마지막 해에 나타난다. 24년 1월 정조는 현릉원¹⁵⁸⁾에 갔으며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릉원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에 신하들은 膈氣가 다시 심해질까 걱정한다.¹⁵⁹⁾ 결국 신하들의 부축을 받고 현릉원에서 내려온 정조는¹⁶⁰⁾ 正氣散 등

으로 치료를 받는다.¹⁶¹⁾

만성기는 절정기에 비해 膈氣와 관련된 기사의 등장 빈도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표현되는 증상의 심각성 역시 절정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절정기의 경우 신하들과의 논쟁에서나 화성으로 행차하는 일 등에서 비교적 극렬한 膈氣 증상이 표현되었던 반면 만성기에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증상의 양상이 비교적 평이하게 등장한다. 신하들의 행동 역시 절정기와 비교되는데, 절정기에 신하들은 정조의 膈氣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그의 행차일 등을 미루려고 여러 차례 정조와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만성기에는 행차를 말리거나 미루는 일이 없거나 있어도 절정기에 비해 덜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증상의 극렬함 여부와 상관없이 정조가 매년 꾸준히 膈氣를 앓았다는 점도 만성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만성기 膈氣 관련 기사들은 모든 해에 두루 분포되어 있으며, 해를 연속해서 膈氣를 경험한다거나,¹⁶²⁾ 지난여름부터 膈氣를 이유로 신하들과의 논쟁을 급히 마무리 짓는다¹⁶³⁾는 등 이 시기 정조는 비교적 평이한 증상이긴 하여도 꾸준히 膈氣를 앓고 있었다.

攝中聖候, 若何? 上曰, 今則比昨差勝, 明當行禮, 再明則當還宮矣’

152)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2월 5일」 ‘大駕詣始興, 入行宮後...’

153)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3월 8일」 ‘傳于李翊模曰, 因三司伏閣之徹符到朝, 而酬應之餘, 膈氣如期而發, 既非時急之事, 則諸臣之此時煩聒, 以致調攝中添苦, 揆以道理, 當乎否乎?...卿宰則若有來待大臣去就於闕外者, 皆令即爲退去.’

154)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3월 11일」 ‘上曰, 動駕時觸冒, 豈至大段, 而次對日酬應, 自致膈氣之添加, 每有一番事端, 輒如此, 誠可悶也.’

155) 『정조실록』 「23년 11월 2일」 ‘領議政李秉模上疏曰...伏乞亟賜鑄免’

156) 『정조실록』 「23년 11월 6일」 ‘庚申/左議政沈煥之, 上劄乞免’, 『정조실록』 「23년 11월 6일」 ‘右議政李時秀, 初度呈辭, 封還’

157)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11월 9일」 ‘上曰, 近日卿等事, 萬萬過矣. 昨日則認以爲安意還第矣. 左相之陳劄, 又何爲若是, 領相雖不得已姑副, 而卿等則豈可以竝爲無端求遞乎?’

158) 화성으로 친정한 사도세자의 무덤

159)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1월 17일」 ‘行纜數步, 上嗚咽掩抑, 不能自定, 承史諸臣, 皆蒼黃罔措. 民始曰, 何又如是乎? 伏乞少加按住焉. 上不答, 仍俯伏叩地, 不覺失聲.’

160)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1월 17일」 ‘時秀曰, 殿下難以

III. 고찰

이상 살펴본 정조의 膈氣와 관련된 『승정원일기』 기사들은 膈氣의 발현 양상이나 시기적 특징 외에도 膈氣와 정조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고찰에서는 그 중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해보았다.

1. 膈氣와 정조의 가족사

정조는 즉위 초부터 승하하던 해까지 약 24년에

少休爲教, 而即地興慕, 尤難抑情, 伏願暫還齋殿焉, 如是者又有頃, 上始起, 諸臣又進前扶掖以下, 乘小轎還御齋室.’

161)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1월 21일」 ‘答曰, 知道. 正氣散一貼, 更爲煎入後, 卿等退去’

162)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6일」 ‘頤之曰, 昨年此時, 聖候, 以膈氣微有愆和之節矣. 今年則諸節萬安...’

163) 『정조실록』 「21년 1월 17일」 ‘竊職前夏以來, 諸臣之若言若事, 或有不概聖心, 則辭教之發動欠節重, 處分之下輒尙嚴急’

膈氣를 앓았다. 그런데 그의 膈氣가 특히 부각되는 시기의 기사들을 보면 정조의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먼저 정조 10년 5월에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문효세자는 태어난지 3개월 만에 원자에 책봉되고 22개월만에 세자로 책봉되어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되었을 정도로 정조의 애정이 높은 세자였다. 그런데 문효세자가 정조 10년 5월 5세의 나이에 紅疫을 앓다가¹⁶⁴⁾ 세상을 떠나고 만다.¹⁶⁵⁾ 같은 해 6월 초 영의정 정준겸이 문효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정조의 膈氣가 잘 낫지 않는 것 같다¹⁶⁶⁾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감정적 동요가 정조의 膈氣를 지속적으로 유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문효세자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첫 번째 후궁이었던 의빈 성씨가 임신한 채로 세상을 떠났으며,¹⁶⁷⁾ 11월 말부터 12월에는 왕대비전인 정순왕후와 의견대립이 있었다. 특히 정순왕후와의 대립 사건에는 은언군이 화두가 되었는데, 은언군은 사도세자의 3남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이었다. 당시 정치적 실세인 홍국영의 여동생이자 정조의 첫 번째 간택 후궁인 원빈 홍씨가 간택 1년 만에 사망하였는데,¹⁶⁸⁾¹⁶⁹⁾ 홍국영이 은언군의 장남 이담을 여동생의 양자로 삼아 자신의 세를 넓히고자 한 사실이 발각되었던 것이다.¹⁷⁰⁾ 신하들은 이를 역모 행위로 보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그 와중에 당시 후궁 간택을 직접 청했던¹⁷¹⁾ 정순왕후가

지 관련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다. 그런데 정조는 은언군의 처벌에 대한 상소문을 태워버리는 등¹⁷²⁾ 은언군을 보호하려고 하며 정순왕후와의 의견충돌을 보였다. 결국 정순왕후와 정조 모두 일종의 단식투쟁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다가¹⁷³⁾ 은언군의 유배지를 강화도로 정함으로써 논쟁을 마무리한다.¹⁷⁴⁾ 정조가 10년 5월 문효세자 사망을 전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膈氣를 앓아오다가 11월부터 12월까지 식사 및 진료를 거절하면서 膈氣를 앓았던 기간은 실제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와 같으며, 이는 정순왕후와의 정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정조의 膈氣를 지속적으로 유발시켰으며 약과 음식을 거부하는 태도역시 膈氣가 낫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정조 13년은 절정기의 첫 해로 갑작스럽게 정조의 膈氣가 심해진 시기이다. 당시 정조가 膈氣를 호소했던 시기는 7월부터 10월까지인데, 사실 이 시기의 膈氣 기사는 영우원 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우원은 정조의 친부인 사도세자의 묘소로 원래 양주에 있었다. 이 시기 정조는 영우원을 수원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고 그 천장이 결정된 날이 바로 7월 11일인데, 이 날은 정조 13년 중 처음으로 정조의 膈氣가 등장한 날이기도 하다.¹⁷⁵⁾

영우원 천장과 관련된 과정을 요약해보면, 8월 9일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酌獻禮¹⁷⁶⁾를 진행하였으며¹⁷⁷⁾, 12일에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에서 園所를 여는 啟園禮를,¹⁷⁸⁾ 20일 영우원 전배를¹⁷⁹⁾, 9월 2일 경모궁 전배를¹⁸⁰⁾, 18일 영우원 전배를¹⁸¹⁾, 10월 1일 영우원 방문을¹⁸²⁾ 하였으며,

164) 『정조실록』 「10년 5월 3일」 ‘世子有疹候，命設藥廳’

165) 『정조실록』 「10년 5월 11일」 ‘王世子薨’

166)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6월 3일」 ‘存謙曰，膈氣痰候，果已差復，而寢睡水刺等節，亦如常度否？上曰，膈滯乍減，而寒痰則終不快降耳。存謙曰，茶飲連爲進御乎？上曰，或進，或停耳。存謙曰，昨日又爲親臨加漆云，日日悲汝勞動，其他傷懷之端，觸處皆然，不知之中，受傷必多。伏願節宣保壽，上以慰殿宮之心，下以副臣民之望焉’

167) 『정조실록』 「10년 9월 14일」 ‘宜嬪成氏卒’

168) 『정조실록』 「2년 6월 21일」 ‘以戶曹參議洪樂春女定嬪，賓廳議定爵號曰，元嬪’

169) 『정조실록』 「3년 5월 7일」 ‘元嬪 洪氏卒’

170) 『정조실록』 「3년 9월 26일」, 『정조실록』 「4년 8월 15일」, 『정조실록』 「10년 11월 20일」 외

171) 『정조실록』 「2년 5월 2일」 ‘命揀嬪御百官。就仁政東庭，將行慈殿賀儀。王大妃下諺書于大臣曰…’

172) 『정조실록』 「10년 12월 3일」 ‘若知今日，又見此啓，則昨日豈令燒火乎?’ 三司再啓，又命燒火’

173) 『정조실록』 「10년 12월 4일」 ‘予忍何心，進御湯劑常膳乎，’子之廢食，今幾日矣’

174) 『정조실록』 「10년 12월 28일」 ‘配禱于江華府.’

175) 『정조실록』 「13년 7월 11일」 ‘定永祐園遷奉之禮…予意已定水原.’

176) 왕이 조상에게 직접 예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

177) 『정조실록』 「13년 8월 9일」 ‘行酌獻禮于景慕宮’

178) 『정조실록』 「13년 8월 12일」 ‘詣永祐園，行啓園禮’

179) 『정조실록』 「13년 8월 20일」 ‘展拜永祐園’

180) 『정조실록』 「13년 9월 2일」 ‘展拜景慕宮’

181) 『정조실록』 「13년 9월 18일」 ‘展拜永祐園’

5일부터 본격적인 천장 의례를¹⁸³⁾ 진행하여 7일에 마무리¹⁸⁴⁾한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영우원에 머물면서 천장 과정을 직접 감독을 하였으며¹⁸⁵⁾ 이후 혜경궁의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환궁을 하였으나 다시 출궁한다.¹⁸⁶⁾ 10월 5일에 靈輿가 출발하여 파천에 머물렀다가¹⁸⁷⁾ 6일에 수원에 도착,¹⁸⁸⁾ 7일에 현궁을 내리면서 본 예식은 마무리된다.¹⁸⁹⁾

정조의 膈氣는 본 예식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영우원 계원례를 행했던 12일 정조의 膈氣가 급격히 심해졌으며¹⁹⁰⁾, 영우원 전배를 하였던 20일에는 신하들과의 논쟁 중에 膈氣가 치솟아 올랐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이 좋지 못하니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거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나 정조는 지금 시행하겠다고 말한다.¹⁹¹⁾ 9월 19일에는 전날 영우원 전배로 인해 먼 길을 다녀온 것에 대해 신하들이 膈氣를 걱정하는데, 이때 정조는 신하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膈氣가 있어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¹⁹²⁾ 이후 천장 예식을 치르는 동안 고조된 감정으로 인해 膈氣 증상이 극도로 치솟기도 하였

다.¹⁹³⁾ 이 때 정조는 특히 가슴을 치며 곡을 하였는데, 곡을 하다 보니 膈氣가 치밀어 올랐으며 손이 차가워지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였다. 또한 膈氣 증상이 심각하여 신하들이 가져온 蘇合元과 湯藥을 먹지도 못했으며 호흡 또한 순조롭지 못하였다.¹⁹⁴⁾ 결국 모든 행사가 끝난 뒤인 10월 14일이 되어서야 정조 스스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 걱정할 바가 없으니 膈氣도 나아졌다고 표현한다.¹⁹⁵⁾ 이 시기 정조의 膈氣는 정조 자신의 염원이었던 영우원 천장과 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동요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염원을 이룬다는 감격과 함께 아픈 과거사를 가진 자신의 생부 사도세자를 제대로 추승하게 되었다는 감정적 동요 또한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조 16년에도 정조의 가족사와 관련된 일이 불거졌는데 이 일은 정조 10년에도 언급되었던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과 관련된 일이었다. 이조참의를 역임한 김우진이 평소 은언군과 친해 은언군의 아들인 완풍군의 혼수를 도와줬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¹⁹⁶⁾ 이 일로 김우진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정조는 이러한 처우를 마땅치 않게 여겨 유배지를 한양과 가까운 교동(喬桐, 지금의 인천 강화도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고¹⁹⁷⁾ 좌의정 채제공이 강력히 반대한다.¹⁹⁸⁾ 2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채제공은 극악한 역적을 가까운 섬에 옮기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사직서를 올리는 상황까지 이

182) 『정조실록』 「13년 10월 1일」 ‘上將詣永祐園’

183) 『정조실록』 「13년 10월 5일」 ‘靈輿自舊園進發’

184) 『정조실록』 「13년 10월 7일」 ‘大禮, 今已克襄’

185)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1일」 ‘上在永祐園, 停常參經筵’, ‘大駕詣永祐園」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2일」 ‘大駕還宮後’

186)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4일」 ‘大駕詣永祐園’

187) 『정조실록』 「13년 10월 5일」 ‘靈輿自舊園進發’

188) 『정조실록』 「13년 10월 6일」 ‘靈輿自果川進發, 到水原新邑幕次’

189) 『정조실록』 「13년 10월 7일」 ‘下玄宮, 遷奠時至, 行禮如儀’

19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12일」 ‘啓園學動入侍時, …上曰, 今予膈氣復劇, 無以進發, 提調使之入來’

191)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20일」 ‘上曰, 爲卿等所困, 膈氣復欲亘上, 須退立也. 僉曰, 臣等誠意淺薄, 不能孚格天心, 莫非臣等之罪也. 夫哭泣, 不過小節, 今番則除哭泣節次, 是所望矣. 上曰, 受服而不哭, 於禮不可, 更勿煩請也. 駕出協陽門, 由建陽門, 出弘化門.’

192)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9월 19일」 ‘命善等曰, 聖候, 至于其日, 而猶有添損之節, 則豈不悶迫乎?…燧曰, 聖孝出天, 今當此日, 豈不欲展省, 而一番動駕之後, 聖候又復添損, 則五六日內, 快復常度, 有未可知, 此豈非萬萬悶迫乎? 上曰, 卿等之言, 一向如此, 然則雖有膈氣, 予當不言矣.’

193)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1일」 ‘膈氣漸至衝巨, 哭不能成聲」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5일」 ‘上一倍號痛, 膈氣又衝巨’ 외

194)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4일」 ‘俄進蘇合丸, 而旋即吐下, 下情尤不勝悶迫矣. 上曰, 膈氣如此之時, 若用燒酒少許, 則爲救急之方, 仍命內侍, 取來燒酒半半盞’

195)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14일」 ‘上曰, 膈氣之差減與否, 專由於心矣. 伊日回還時, 江以南則果甚孔酷, 而今則慈殿, 慈宮, 以予之無事回還, 稍以爲幸, 今何以未得差勝爲教乎’

196) 『정조실록』 「10년 12월 3일」 ‘乃者宇鎮父子, 又結此賊, 暗窺國勢之孤危, 陰爲日後之凶圖. 自爲媒灼, 主其婚媾, 其心所在, 路人亦知.’

197) 『정조실록』 「16년 2월 10일」 ‘命移配金宇鎮于喬桐府. 初, 上密遣宣傳官, 賚標信入濟州, 出宇鎮于棘中, 且允臺啓’

198) 『정조실록』 「16년 2월 13일」 ‘左議政蔡濟恭上疏曰…原疏雖未得見, 概以聖教推之, 其蹈藉譏切, 可以知之’

르나 결국 김우진은 정조의 뜻에 따라 이배된다.¹⁹⁹⁾ 실제 이시기 정조의 膈氣 증상을 살펴보면, 김우진의 유배지를 옮기고자 했던 2월 10일 정조는 마음 쓰는 일로 膈氣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며,²⁰⁰⁾ 체제공의 반대가 있던 13일, 체제공이 사직서까지 올리면서 반대한 14일에 膈氣가 심해진다.²⁰¹⁾²⁰²⁾

이 외에도 22년에 있었던 膈氣 기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에 참배를 드리는 일정과 맞물려 있었으며,²⁰³⁾ 24년의 膈氣 기사 역시 현릉원 참배와 관련되어 있다.²⁰⁴⁾ 23년의 膈氣 기사의 경우 사도세자의 친동생 화완옹주와 연관되어 있다. 정조가 즉위한 뒤 정치달의 양자인 정후겸이 정조가 세손일 때부터 정조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이 정치달의 처가 바로 화완옹주였다. 이 사건으로 결국 정후겸은 사사당하고 화완옹주 역시 자신의 호를 삭탈 당하고 유배생활을 한다. 그러다 정조가 그녀의 석방을 주장하며 신하들과 대립을 벌이고 결국 정조 23년 3월 화완옹주는 궁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실제 정조는 이 무렵 화완옹주의 처벌에 대한 신하들과의 논쟁 중에 여러 차례 膈氣를 언급한다.²⁰⁵⁾²⁰⁶⁾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정조의 膈氣와 그의 가족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조 10년 문효세

자와 의빈 성씨의 사망사건이 준 슬픔이 그의 膈氣를 점차 내재시키는 과정에 있었다면, 은언군과 그를 도운 김우진에 대한 처벌,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의 천장, 화완옹주에 대한 처벌 등은 정조의 膈氣를 절정에 치닫게 만든 사건들로 보인다. 특히 정조의 膈氣는 감정이 격정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잘 발생했는데, 영우원 천장이나 신하들과의 격한 논쟁처럼 그의 감정이 동요되는 상황에서 膈氣가 잘 발생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정조의 膈氣가 특히 사도세자와 여러모로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영우원 천장, 현릉원 참배는 물론이거니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언군과 여동생 화완옹주를 처벌하는 상황도 정조의 膈氣를 유발시킨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우원 천장이 정조의 염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쳐 올라 膈氣로 이어졌다면, 은언군 등의 사건은 신하들과의 논쟁 스트레스가 감정을 격화시켜 膈氣로 이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2. 膈氣와 정조의 정치

膈氣는 정조 질병으로서 단순히 의학적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조가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조 16년에 있었던 도당록 작성이다. 정조는 의견차 때문에 도당록 작성을 미루고 있는 좌의정과 우의정에게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빠른 업무 처리를 요구하며,²⁰⁷⁾ 결국 바로 다음날 도당록이 작성된다.²⁰⁸⁾ 당시 신하들에게 왕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정조의 요청에 빠르게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16년 윤4월부터 5월의 膈氣는 영남만인소 사건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4월 18일에 올라온 유성한의 상소에서 시작된다. 노론측 인물 유성한은 정조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상소문을 올렸으며²⁰⁹⁾, 이에 많은 대신들이 유성한을

199) 『정조실록』 「16년 2월 14일」 ‘左議政蔡濟恭初度呈辭’
200)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0일」 ‘膈氣卽予本症, 而今則年年如期而發…上曰, 膈氣自前有之, 而大體行役則少勝, 勞心則添加矣’
201)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3일」 ‘堦曰, 膈候升降, 何如? 上曰, 酬應小則差勝, 酬應煩則復發矣.’
20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4일」 ‘忽於今朝, 左相又尋單, 敦諭也, 偕來也, 許多酬應, 十倍於昨日, 方升之氣, 烈於熾火’
203)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2월 4일」 ‘大駕詣顯隆園, 入齋室後, 內閣·政院·玉堂·藥房·朝廷二品以上·大司諫·宗親·儀賓口傳問安. 答曰, 知道.’
204)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1월 16일」 ‘上在顯隆園, 停常參經筵.’
205)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3월 8일」 ‘傳于李翊模曰, 因三司伏閣之微得朝, 而酬應之餘, 膈氣如期而發, 既非時急之事, 則諸臣之此時煩聒, 以致調攝中添苦, 揆以道理, 當乎否乎?…卿宰則若有來待大臣去就於闕外者, 皆令卽爲退去.’
206)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3월 11일」 ‘上曰, 動駕時觸冒, 豈至大段, 而次對日酬應, 自致膈氣之添加, 每有一番事端, 輒如此, 誠可悶也.’

20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3월 27일」 ‘左相書啓之批, 悉之…況卿在保護重任, 熟知其酬應若煩, 膈氣如期, 而如是自割, 不念貽惱者, 不可但以慨然言. 安心勿待命, 卽爲開坐, 一心對揚, 俾完圈事之意.’
208) 『정조실록』 「16년 3월 28일」 ‘都堂錄 四點李義駿…’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²¹⁰⁾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던 중 윤4월 19일 전 수찬 이지영이 유성환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²¹¹⁾, 이 상소가 정조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4월 22일 정조는 이지영을 불러 직접 상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이 메어 흐느끼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상황에서는 膈氣가 올라오기도 하였다.²¹²⁾ 다음날에도 유성환의 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膈氣가 올라왔는데, 정조 스스로 근래에 듣기도 보기도 힘든 상소가 있어 膈氣가 심하다는 표현을 한다.²¹³⁾

이러한 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조가 유성환을 벌하지 않자 이제는 영남지방의 수많은 유생들이 동시에 상소를 올리기에 이른다. 윤4월 27일에 올라온 이 상소는 약 1만 여명의 유생들이 사도세자의 무고함을 알리고 유성환을 비롯하여 사도세자를 포함하여 죽음으로 이끈 노론측 인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상소였으며,²¹⁴⁾ 상소는 5월 7일 다시 한 번 올라왔으나 정조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²¹⁵⁾ 결국 만민소를 전달하러 올라온 영남지방 유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도 하고²¹⁶⁾, 유성환과 관련된 상소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등 정조의 뜻을 바꾸려는 신하들의 노력이 5월 내내 계속되었다. 이 무렵 정조는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할 일들로 인해 膈氣가 발생했다든가,²¹⁷⁾ 신하들과의

논쟁 자체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 말하며²¹⁸⁾ 膈氣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외에도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은언군의 처벌과 관련된 신하들과의 논쟁에서도 정조는 신하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膈氣가 심해진다고 하였으며,²¹⁹⁾²²⁰⁾ 17년에도 자전과 자궁의 존호와 관련된 신하들과의 논의 중 膈氣가 올라왔다.²²¹⁾ 정조 21년에 있었던 이명연의 상소는 이러한 정조의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일례라 할 수 있다. 膈氣로 인해 신하들과의 논의를 거부하는 정조의 모습²²²⁾이 신하로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삼정승의 면직 요청²²³⁾²²⁴⁾을 거절하는 과정에서도 정조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膈氣를 일으킨다고 말한다.²²⁵⁾

정조에게 膈氣는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지병이었으며, 그 괴로운 정도가 상당히 신하들과 논쟁

209) 『정조실록』 「16년 4월 18일」 「正言柳星漢上疏」
210) 『정조실록』 「16년 4월 27일」 「臣謂前正言柳星漢，爲先施以削黜之典，『정조실록』 「16년 4월 29일」 「請前正言柳星漢，亟令王府，嚴鞫得情，快正典刑」 외
211) 『정조실록』 「16년 윤4월 19일」 「前掌令李祉永上疏曰」
21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윤4월 22일」 「召見前修撰李祉永… 予心抑塞，膈氣往來，語音難成，無以詳盡，姑待後日入侍，更當問之。」
213)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윤4월 23일」 「上曰，近以不忍聞不忍見之章奏，鎮日入徹，予之心思，無以底定矣」
214) 『정조실록』 「16년 윤4월 27일」 「慶尙道幼學李瑛等一萬五十七人上疏。」
215) 『정조실록』 「16년 5월 7일」 「慶尙道參奉李瑛等一萬三百六十八人再疏」
216) 『정조실록』 「16년 5월 11일」 「依下教，嶺南疏儒下去時糧資，使之受去，則儒生李瑛等以爲：飭教之下，不勝惶蹙，而群情抑鬱，亦不敢遽然退歸。歸計既未自定，則回糧有難祗受云，姑不得舉行」

21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9일」 「上曰，此月又當，齋日不遠，心思靡定，而近以不忍聞不忍見之章奏，膈氣上升，精神不能收拾矣」
21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22일」 「膈候俄間，何如? 上曰，往來之氣，故升降不知一日幾次矣? 昌順曰，醫官方待令，茶飲之屬，先爲議定，千萬伏望。上曰，置之。又教曰，今予之神氣，實難酬接」
219)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3일」 「堉曰，膈候升降，何如? 上曰，酬應小則差勝，酬應煩則復發矣。」
220)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2월 14일」 「忽於今朝，左相又尋單，敦諭也，偕來也，許多酬應，十倍於昨日，方升之氣，烈於焰火」
221)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1월 20일」 「卿等若以予言，猶以爲不然，雖將此事，仰徹殿宮，殿宮之教，亦必以卿等之言，爲不可，似此緣由，非不欲詳及於批旨，此非可以形容於文字之事也，況今祝慶飾歡之時，亦不欲提及而然也。」
222) 『정조실록』 「21년 1월 17일」 「執義李明淵疏曰，伏以年光載新，邦福如天，殿宮賀添壽之慶，胄邸佇就傅之吉，正宜天心悅豫，玉體康泰，下洽含生，樂得無疆，而遇者聖候，以膈間潮氣，愆和有日，臣庶焦憂…」
223) 『정조실록』 「23년 11월 2일」 「領議政李秉模上疏曰…伏乞亟賜鑄免」
224) 『정조실록』 「23년 11월 6일」 「庚申/左議政沈煥之，上簡乞免，『정조실록』 「23년 11월 6일」 「右議政李時秀，初度呈辭，封還」
225)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11월 9일」 「煥之曰，伏見樂院問候批旨，以膈候爲教矣，俄間未審，何如? 上曰，日候近亦過曠，故背部尚有汗氣，而今筵酬應，亦不得已而爲之矣。… 上曰，近日卿等事，萬萬過矣。昨日則認以爲安意還第矣。左相之陳筭，又何爲若是，領相雖不得已姑副，而卿等則豈可以竝爲無端求遞乎?」

이 격해지다보면 논의를 그만두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이 상황을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정조의 膈氣란 신하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왕의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내민다는 것은 신하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즉 정조에게 膈氣는 본인이 겪었던 하나의 병증으로 정사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자 동시에 본인이 신하들과의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한 것인데, 이는 奇疾이라는 증상으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청했던 신하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정치적 흐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경종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²²⁶⁾

IV. 결론

이상의 분석 및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조 膈氣의 발단기는 즉위초부터 재위 7년까지이다. 이 시기 膈氣는 다른 증상들과 동반되는 증상 중 하나이거나 잠시 언급이 되는 정도로 증상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 膈氣의 원인은 주로 暑邪나 痰으로 귀결되며, 병증 역시 더운 시기에 발생하는 편이다.
2. 정조 膈氣의 내재기는 재위 8년부터 재위 12년까지이다. 이 시기 膈氣는 정조의 질병으로서 존재감이 점차 커져간다. 정조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 증상이자 정조 자신도 인정한 자신의 고질병이 되어가며, 신하들 역시 膈氣를 독립적인 증상으로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시기에는 膈氣의 발생 원인이 기후적 원인에서 심리적 원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3. 정조 膈氣의 절정기는 재위 13년부터 재위 18년까지이다. 이 시기 膈氣는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짧아지거나 기도가 막히고 정신

이 멎해지는 등 상당히 걱정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하들과의 논쟁상황에서 膈氣가 올라와 업무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신하들에게 빠른 조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신하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膈氣가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4. 정조 膈氣의 만성기는 재위 19년부터 재위 24년까지이다. 이 시기 정조의 膈氣는 그 빈도수나 증상의 강도가 많이 줄어든다. 신하들과의 논쟁상황이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절정기와 같은 극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보다는 비교적 무난하게 증상이 발현되는 편이다. 그러나 재위 24년까지 膈氣가 꾸준히 언급된다는 점은 정조가 膈氣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증상이 만성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임을 보여준다.
5. 정조의 膈氣는 정조의 가족사와 관련된 일에서 비교적 빈번하고 강렬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정조 10년 문효세자의 일을 제외하면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 사도세자의 여동생 화완옹주와 같이 사도세자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과 관련된 일에서 신하들과 의견대치를 이루며 膈氣가 심해진다. 또한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천장하거나 참배를 다녀올 때 膈氣가 심해졌는데, 이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일이 여러모로 정조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정조에게 膈氣는 자신이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며 동시에 정치적 도구였다. 신하들과의 논쟁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膈氣가 올라와 그만뒀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신하들에게 자신의 膈氣를 이유로 빠른 업무 조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膈氣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서 왕의 건강을 지켜야하지만 자신들의 주장도 전달해야하는 상황적 딜레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26) 김동율, 김남일, 차용석. 『承政院日記』醫案을 통해 살펴본 경종(景宗)의 기질(奇疾)에 대한 이해. 한국사학회지. 2013. 26(1). pp.41-53.

그간 대중들에게 정조의 질병으로 가장 잘 알려진 병은 ‘火病’이었다. 그런데 사실 火病 혹은 火症이라는 용어는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정조년간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정조가 어려서부터 울화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오르는 병이 있었다던가,²²⁷⁾ 素病으로 화병이 있었다²²⁸⁾는 등 정조의 화병을 짐작케하는 연구자들의 분석이나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鬱火, 膈間熱火之宿証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었다.²²⁹⁾ 膈氣에 대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조의 膈氣가 오늘날 火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 및 대표 증상, 즉 억울과 분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슴 답답함 및 치밀어 오름²³⁰⁾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추후 정조의 건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조의 화병 및 그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도 더욱 다채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References

1.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2011. 16(4).
 2. 김달래, 김선형.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 21(1).
 3. 김동율, 김남일, 차웅석. 『承政院日記』醫案을 통해 살펴본 경종(景宗)의 기질(奇疾)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1).
 4.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5. 김종우, 현경철, 황의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10(1).
 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1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0.
 7. 서정미.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16.
 8. 신양선. 조선후기 정조 연구. 역사와실학 1993. 4.
 9. 허준.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10.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on July 18, 2019]; Available from: sjw.history.go.kr
 11. 국사편찬위원회. 정조실록 [cited on July 18, 2019]; Available from: sillok.history.go.kr
 12.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五膈氣論. 향약집성방 [cited on August 6, 2019];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26#content_228
 13.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膈氣. 한의학대사전 [cited on August 6, 2019];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28260&cid=58505&categoryId=58527>
- 227)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4). p.156
- 228) 김달래, 김선형.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 21(1). p.48.
- 229) 김종우, 현경철, 황의완. 화병의 기원에 관한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10(1). pp.207-208.
- 230)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1. 16(4). pp.691-692.